

오래된 과제에는 현실적 해법을 찾고, 반복되는 위험에도 촘촘히 대응

- 한성숙 국무총리,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제
- (안건1)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제도적 공백 해소
- (안건2) 24시간 상황관리, 취약요인 집중점검으로 추석 연휴 안전 확보
- (안건3) 조류인플루엔자·구제역·ASF 위험 대비, 맞춤형·선제 방역 강화

【관련 국정과제】 (안건1) 98.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

□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6일(수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.

* ①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(성평등부·식약처·복지부), ②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(행안부), ③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(농식품부)

□ 한 총리는 “오랫동안 묵은 과제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위험을 관행처럼 넘겨서는 안된다”며, “오랜 과제는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고, 매년 반복되는 일은 지난해보다 나아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○ 특히, “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는,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된다”며, “필요한 제도는 제때 마련하고, 예상되는 위험에는 한발 앞서 대비할 것”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.

□ 먼저, 첫 번째 안건으로 「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」을 논의했다.

○ '19년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.

- 이에 정부는, **여성의 건강과 안전**을 위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만큼,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들을 조정해가며 **실행 가능한 대안**을 만들어 내는데 집중했다.

- 이러한 과정을 거쳐, 정부는 **인공임신중지 약물**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.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의 원내처방·조제 방식*으로 운영하고, 의료계의 자율적 진료지침 마련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.

*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임신중지 약물 추가(적용기간 2년 설정)

- 아울러, 인공임신중지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「모자보건법」·「형법」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.

□ 다음으로,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 사고, 화재, 치안 등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종합하여 「**추석 연휴 안전 관리대책**」에 대해 논의하였다.

- 연휴 전에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, 대형창고 등 **다중이용시설**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.

- 또한, 연휴 기간에는 **중앙재난안전상황실**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며,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.

- 이와 함께, 연휴 기간 **화재 예방**을 위해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고, 반지하·쪽방촌 등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**예찰활동**을 강화한다. 또한,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고,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휴기간 치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□ 마지막으로, 「**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**」을 발표했다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가 피해는 물론, 축산물 수급과 가격까지 영향을 미쳐,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

- 특히, 이번 겨울철은 해외 야생조류(철새 등)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, 중국 등 인접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한편,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의 새로운 전파경로가 확인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.
- 먼저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조사를 9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고, ①지역 거점소독시설, ②농장 출입구, ③농장 축사의 3단계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. 특히 대형 산란계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람·차량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, 24시간 무인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.
- 구제역은 신종 유형(SAT1형)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접경지역 등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접종을 실시하고, '27년까지 소·돼지 전 두수 접종분 백신을 비축한다. 기존 유형(O형)에 대해서도 백신 누락개체에 대한 보강접종 등 접종 관리를 강화한다.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은 야생멧돼지, 혈장단백 유래 사료, 불법 축산물 등 3대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발생을 차단한다.

□ 한 총리는 “국민은 대책의 제목보다 달라진 결과를 기억한다”며, “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, 국민들께서 정책을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”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.

※ 안전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지현 (044-200-2056)
		담당자	서기관	박주언 (044-200-2535)
담당 부서 <인공임신중지 약물도입>	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영준 (044-204-7500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태 (044-202-3390)
	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혜민 (02-2100-6151)
		담당자	사무관	이연희 (02-2100-6149)
	식품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남수 (043-719-2341)
		담당자	사무관	전보명 (043-719-2306)
담당 부서 <추석연휴 안전관리>	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윤동진 (044-205-41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형 (044-205-4112)
담당 부서 <가축전염병 특별방역>	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용직 (044-201-2511)
		담당자	서기관	이현경 (044-201-2515)